

글별 코멘트, 트랙백, 히트 카운트를 RSS에 포함합니다.

2007년 10월 중순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7: 로러7 다운로드를 허용](#)"함으로써 브라우저 IE6 말살정책이 워 [그래프](#)에서 여실히 드러나 버전교체를 실시했습니다. 이 속도가 계속해 IE7이 확보하게 되면서 사실상 IE6는 역사속의 과 함께말미죠;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간절

[Comments\(24\)](#) | [Trackbacks\(1\)](#) | [Hits\(640\)](#)

☆ [별표 추가하기](#) [공유](#) [이메일](#) [읽은 상태](#)

[태터툴즈 하이브리드 버전](#)을 만들겠다고 작심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자바스크립트의 향기에 흠뻑 취해서 1년이 넘도록 등한시하고 있었네요. 진행상황을 낱낱이 보고하지 않아서 그렇지, 커스토마이징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차마 관심 가져달라고는 못하겠군요. ^^) 그건 그렇고, 최근 RSS 전문 리더기([구글 리더](#), [한RSS](#) 등)의 사용층이 증가함에 따라 트래픽 순환구조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욱이 본문 전체공개를 원칙으로 배포하는 경우 발간자의 입장에서 보면 흐름(User flow) 자체가 끊기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부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꼼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위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코멘트, 트랙백, 히트 카운트 및 링크를 본문 하단에 포함킨 것이지요. 추가적인 RSS 갱신 주기는 댓글 또는 트랙백이 추가되었거나 삭제되었을 때 이며, 지난 글들의 일관성있는 보존을 위해 RSS 마지막 아이템에는 해당 정보를 제거하는 규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대상(피드 수)에서 벗어난 아이템의 경우 카운트 정보를 더이상 업데이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링크들을 제거하여 리더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부분공개로의 전환을 고민했습니다만, 사실 부분공개한 RSS는 저부터도 거부반응을 보이는 걸요. 참고로, RSS 2.0 규격에는 댓글로 연결하기 위한 링크정보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리더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들이 이 링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 자체에 이와 같은 링크들을 추가함으로써 독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연결 고리를 제공하고 조금 더 원활한 교류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시다시피 블로그는 정보전달의 도구이자 의사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잖아요.